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와 또한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개혁을 잘 마무리 하였던 요시야 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생은 극과 극을 이루듯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후 회개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하며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늘 33장19절에도 보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새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는 등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그가 회개 하고 겸손하게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더욱 범죄하였고 아몬 이 후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나이 여덟 살 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시간이 갈수록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개혁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일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지켰던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달에 지킨 반면 요시야 시대에 지킨 유월절은 원래 유월절인 첫째 달 열 넷째 날에 지켰습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이 유월절이 얼마나 성대하게 드려졌는지 오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정비하고 모든 개혁 작업을 완수하고 유월절일 지킨 이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왔습니다. 느고는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은 아니었고 유브라

데 강가의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느고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왕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너무도 어이없게 느고와의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선한 왕의 허무한 죽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의 상황들을 보면 이 요시야의 죽음이 요시야 자신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느고가 유다에 와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킨 후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은지 11년 후에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고 성전의 기물들과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느브갓네살이 이번에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앞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해 내신 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각 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하고 돌아 올 것을 촉구하시는 동시에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쫓아

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리기를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요시야의 죽음이 사실은 축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외세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므깃도에서 죽은 이 후에 이러한 모든 폭풍과 같이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과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16절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 이라는 지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 영은 귀신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고 왕들은 천하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있은 후에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므깃도의 산, 므깃도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므깃도의 산이 언급된 곳 중 하나가 오늘 요시야가 참전했던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므깃도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요시야는 이 므깃도 전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아마겟돈 바로 전 절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큰 전쟁을 묘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는 성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므깃도와 아마겟돈의 실제 장소가 어디인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의 진의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요시야가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

하게 행하며 그 분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새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